

1. 2020학년도 수능

[1~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
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 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새」에서 ‘새장에 갇힌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2.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4~6]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뇨
㉡햇발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룻이라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김영랑, 「청명」-

*취어진:계절의 정취에 젖어 든.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짹짹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리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싣는 날
에.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낮 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청정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갈의 비룻’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3.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7~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 - 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 - 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김광균, 「추일서정」-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러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짚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8.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놀려	㉡
3연	들짚레	들짚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엷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 ①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 ‘놀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짚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엷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9.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빈자리’를 ‘들짚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덩굴’의 움직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

4. 2019학년도 수능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A]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스럽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용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넉출 남풍에 자라고 [B]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백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C]
 짧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D]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옥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만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E]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땀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므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11.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5.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1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받’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6.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1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
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
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
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
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
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
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
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
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
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
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
시고 [A]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
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B]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C]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
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물 [D]
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E]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배한봉, 「우포늪 왓새」-

*왓새:왜가리의 별명.

*동편제:판소리의 한 유파.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7. 2018학년도 수능

[16~18]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열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달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A] 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7.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18.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8.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2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놓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
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웁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한밤에 ㉡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근이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궁거워 : 궁금하여.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9.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2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A]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춧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

지이다

-조지훈, 「고풍 의상」-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B]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부연(附椽):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호장: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헝겊으로 꾸민 것.

*초마:‘치마’의 방언.

22.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3.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24.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5.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꽝 꽝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10. 2017학년도 수능

[26~2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것이다

면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
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
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
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
도 썩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
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
리던 어리석
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
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26.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7.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11.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2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9.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12.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3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었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
 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
 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
 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
 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
 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
 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박두진, 「향현(香峴)」-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30.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똥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13. 2016학년도 수능

[32~3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C]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D]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32.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3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4.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14.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36]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릇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신석정, 「꽃덤불」-

(나)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봉건, 「사랑」-

3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15.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3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고은, 「성묘」-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
오딧빛 틈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틈마루는 외
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
닥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
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
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
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
울 틈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
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

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틈마루에까지는 어머니
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
다.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틈마루」-

*눈 안에 선지가 생길:눈에 핏발이 설.

*서도: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
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
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3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안’은 화자가 뒷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뒷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뒷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②
5. ③
6. ④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③
13. ③
14. ③
15. ⑤
16. ③
17. ④
18. ⑤
19. ①
20. ④
21. ③
22. ①
23. ②
24. ⑤
25. ④
26. ②
27. ②
28. ④
29. ③
30. ④
31. ④
32. ⑤
33. ④
34. ③
35. ②
36. ①
37. ④
38. ⑤
39. ①